

○ 외환리포트

전일동향

전 거래일대비 4.40원 상승한 1,203.00원에 마감

30일 달러-원 환율은 1,190원 후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다 장 막바지 숏커버에 전 거래일 대비 4.40원 상승한 1,203.00원에 마감하였다.

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-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,198.50원에 개장하였다. 개장 이후 환율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양호한 각국의 경제지표를 반영하며 1,190원 후반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. 그러나 장 막바지 숏커버에 환율이 1,200원 위로 올라서며 1,203.0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. 시장 평균환율은 1,198.50원에 고시되었다.
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-원 재정환율은 1,120.89원 이다.

전일 달러 변동

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
1198.50	1203.00	1195.40	1203.00	1198.50

전일 엔화 변동

시가	고가	저가	종가
1112.20	1118.73	1109.30	1114.52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0.46	-1.47	-3.72	-8.38
결제환율(수입)	0.15	0.11	-1.09	-3.15

*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.
* 해당월 말일(영업일)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
*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금일 전망

美 소비회복 기대감... 1,190원 후반 중심 등락 예상

금일 달러원 환율은 양호한 美 소비자신뢰지수에 소비회복 기대감이 부각되며 1,190원 후반 중심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1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203.00원) 대비 4.15원 하락한 1,198.75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.

미국의 소비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시장의 심리가 위험선호로 돌아섰다. 미국의 6월 소비자신뢰지수는 85.9에서 98.1로 상승하며 시장의 예상치(91.8)를 큰 폭 상회하였다. 소비자신뢰지수는 소비자 지출을 예측하는 선행지수로 소비자신뢰지수 상승에 따라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. 금일 환율은 이상의 소비회복 기대감에 따른 리스크온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다만,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회복속도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. 미국의 파우치 NIAID소장은 현재 상황을 되돌리지 못하면 미국 신규확진자수가 일일 10만 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, 코로나 재확산에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한 주들이 16개로 증가했다. 이상의 경계감에 하단은 1,190원 중반에서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195.25 ~ 1203.5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717.86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.15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25812.88, +217.08p(+0.85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74.55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3086 억원

주의사항

※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.
※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